

Venture Radar

벤처, 지난해 수출 약진

지난해 벤처기업 수출이 전년대비 23.8% 증가한 74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우리 산업에서 벤처기업의 수출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에 따르면 2003년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대비 19.6% 증가한 817억 달러, 대기업 수출이 19.1% 증가한 1120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벤처기업 수출은 23.8% 증가한 73억7900만 달러를 기록해 지속적인 성장률을 과시했다.

벤처기업 수출은 2001년 50억 달러를 넘어서 2002년 60억 달러, 2003년 73억 달러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지난해 미-이라크전, 사스(SARS) 발발, 화물연대 파업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벤처기업은 구조조정기로 업체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나름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수출 대상국으로는 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29.5% 증가한 168억 달러로 집계돼 2년 연속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수출시장으로 지위를 굳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강화해 2007년까지 1000억 달러 중소기업수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순수 내수기업을 매년 1500개 이상 수출기업으로 육성해 수출저변을 확충하는 한편, 아시아권으로 집중된 수출시장을 브릭스 등 신흥 및 틈새 시장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타깃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청, 2400억원규모 사모주식투자펀드 결성

중소기업청은 700억원의 정부기금을 출자해 2400억원 규모의 사모주식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를 결성할 계획이라고 지

난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스타펀드’(Global Star Fund)가 결성된다.

아울러 비공개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 조정을 위해 ‘M&A펀드’가 300억원 규모로 결성되며,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리코스닥 ‘유동화 펀드’가 300억~5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이밖에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 창출 펀드’(300억~500억원),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협력펀드’(300억~500억원) 등이 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펀드 결성을 위해 총 700억원의 정부기금을 출자할 예정으로 올해에는 400억원의 기금이 우선적으로 출자된다.

중기청, 수출중소기업인상 수상대상 업체 신청접수

중기청은 수출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수출분위기 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인상’ 수상 대상업체 신청을 받고 있다. 수출중소기업인상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24개 업체를 발굴·시상한 바 있다. 모집대상은 2003년중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출액·수출증가율이 높거나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변신한 사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2개 업체씩 총 6개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업체로 선정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및 수출 금융 심사시 가점부여,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대, 아리랑TV 제품 홍보, 무역서비스 및 상품전시회 무료 참가지원 등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중소기업인상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문의 및 접수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하면 된다.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공계 지원에 관한 법안인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안은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 인력에게 재직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가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 및 정책결정, 승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시책을 추진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지원, 육성 및 전주기적 활용체계 구축, 공직진

출 확대 및 처우개선, 산·학·연·관 교류 확대, 이공계 진학 촉진, 대학·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공계대학의 우수한 학생에 대해 연구장려금 지급, 생활비용 지원 등 장학기회를 확대하고 이공계대학 학생의 특별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특별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부, 올 게임산업 육성에 189억 투입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산업 정책자문협의회' 구성과 해외진출 거점 확보 등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하고 189억원을 투입한다. 또 게임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법·제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는 지난 4일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을 위한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의 첫해인 올해 189억3000만원(게임투자조합 및 문산기금융자 별도)을 투입, △게임산업 인프라 강화 △해외진출 역량 강화 △인식제고 및 저변 확대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응용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 7개 과제를 실행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게임시장 규모 5조3000억원, 생산규모 2조4000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 5만3000명, 해외수출 2억9000만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나노기술집적센터 설립

나노기술(NT) 산업화를 촉진하는 '나노기술집적센터'가 설립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지난 4일 나노기술이 초기에 상업적 성과를 거둬 국내 소재 및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나노기술집적센터 2개소를 구축하기로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나노기술 활용도가 높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장비 및 재료 산업의 NT 인프라 구축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800억원(정부 900억원, 민간 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노기술집적센터는 △나노소재 및 재료 △나노 공정 및 장비 등 2개 센터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산·학·연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서 산업화지원에 이르기까지 일괄 서비스를 목표로 핵심 연구장비를 갖춘 인프라 시설로 구축하게 된다.

한국산업기술재단,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사업 실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이사장 이기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인원 1인당 매월 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1개 기업당 상시근로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3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벤처 이슈

디지털 타임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벤처기업들이 새롭게 우리 경제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터넷포털기업과 온라인게임업체들은 사상 초유의 실적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등 '제2의 중흥기'를 맞은 벤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간접지원이 필요함을 보도한 특집기사

▼ 2004년 3월 5일 디지털타임스 48면

전자신문

차세대 한국 벤처산업을 이끌 대표 벤처기업가들이 벤처기업협회 임원진으로 대거 합류함에 따라 벤처신화 재연에 나서게 되었으며, 협회는 벤처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고 벤처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등 벤처 부활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도한 기사

▶ 2004년 2월 25일 전자신문 18면

